

세계 휘발유 구매력 비교

우리 나라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휘발유 구매력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다음 그림은 세계 50개국의 소득수준과 휘발유 가격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50개국을 대상으로橫축에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縱축에는 국민소득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 개인 총소득의 휘발유 구매력이 휘발유 1,000갤런 이하인 국가가 11개이며 1,000 갤런에서 2,000갤런 사이가 11개국이다. 이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 60%를 넘는 국가가 3,000갤런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몇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이탈리아가 가장 두그리진 예인데 이탈리아는 국민소득이 美國의 2/3에 달하는 비교적 고소득 국가임에도 1인당 구매 가능한 휘발유 양은 멕시코와 콜롬비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찬가지로 右下에 분포하고 있는 덴마크, 이탈리아, 日本 모두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상회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1인당 휘발유 구매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이 매우 개략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휘발유 가격수준의 비교에서는 이용가치가 있다.

♣ <에너지 데땅뜨誌>

세계의 개인소득 / 휘발유가격 비교

